

주요 내용

■ 주가 1,000포인트대 진입의 배경과 시사점 ■

주가 1,000포인트대 진입 상황

- 과거 89, 94년의 1,000 포인트 진입시와 비교할 때, 지금은 경기 정점이 아닌 경기 회복의 초기이며, 한계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리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의 1,000포인트대 진입임

배경과 특징

- (주요 배경) 정부의 증시 활황책,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외의 긍정적인 평가, 기업의 실적 호전 및 저금리로 인한 증시로의 자금유입 등이 주요 원인임
- (대세 상승세) 증시 완전 개방, 기업 및 금융기관 투명성 증대, 신규 펀드 도입 및 사이버 증시 대중화 등 새로운 증시구조를 바탕으로 대세 상승세 시현
- (주가 차별화와 변동성 심화) 외국인 비중 증대와 기관투자자들의 장세 주도가 두드러져 종목간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변동성도 증대되고 있음

시사점

- (증시 전망) 기술적으로는 향후 세자리수 주가지수 재진입이 힘들어지고, 구조적으로는 주식자본주의의 도래, 사이버 증시의 확대,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등 국내 증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과제) “기업 수익 증가→주가 상승→소비 증대”라는 윗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증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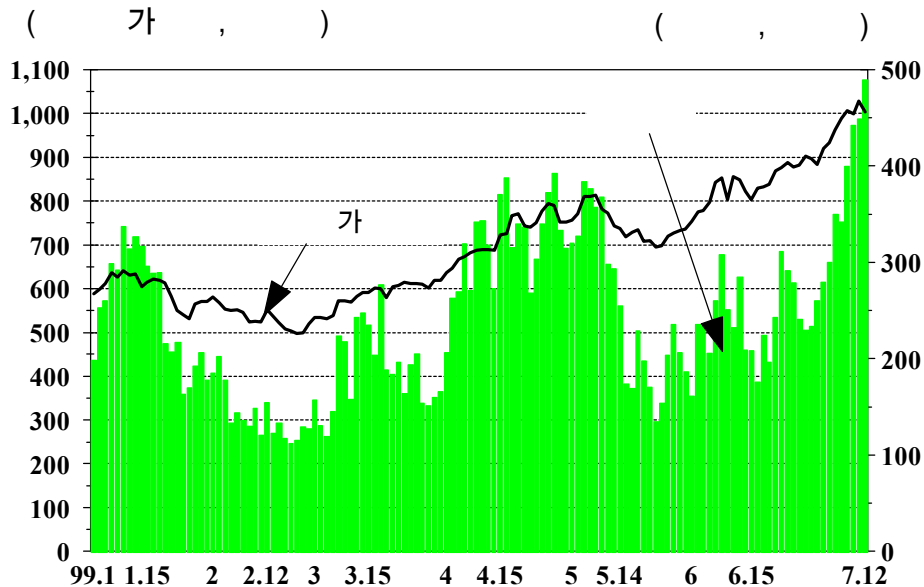
주가 1,000포인트대 진입의 배경과 시사점

김희성

현황

- (증시 현황) 증시 관련 지표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새로운 증시 구조로 탈바꿈
 - 지난 9일 주가 1,072.93, 거래량 4억 4,871만 주, 거래대금 6조 3,533억 원, 시가총액 304조 6,18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12일 현재 주가는 1,004.25, 거래량 4억 8,918만주, 거래대금 6조 6,255억 원, 시가총액은 298조 4,590억 원을 보임
 - 이는 과거 89년 4월이나 94년 11월의 주가 1,000포인트 시대와는 경기상황, 상승동력, 시장 상황 및 금리 수준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경기 회복 초기이며, 구조조정이 부실기업들이 퇴출된 시장 상황에서 7%대의 저금리가 유지, 증시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종합주가지수와 거래량 추이 >



주가 1,000포인트대 진입 배경

- (구조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
 - 한계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퇴출 또는 매각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V자형 경기회복을 낙관하는 경향이 있음
- (기업의 실적 호전 전망) 상장기업의 대폭적인 실적 호전 전망이 주가에 先반영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저금리의 정착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 올 순이익 규모는 10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1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
 -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업종을 제외한 상장사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¹⁾이 올 연말과 내년에 각각 8.6%, 10%대에 이르러, 시중금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증대) 저금리와 간접투자시장의 확대로 증시 자금 유입이 증대
 - 여타의 자산운용수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리가 과거의 13%대가 아닌 7%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급증하고 있음
 - 6월 현재 주식형 수익증권이 33조 2,795억 원에 이르고 있고 뮤추얼 펀드도 2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간접투자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장세 진단

- (새로운 증시 구조를 바탕으로 한 대세 상승 장세) 국내 증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면서 상승국면에 진입하였음
 - 완전 개방된 증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투명한 투자 여건, 경기 회복의 초기 국면으로 기업의 실적 호전이 두드러지며, 저금리를 바탕으로 유동성이

1) 세후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나를 나타내는 기업의 수익성 지표임

풍부한 상황임

- 또한 새로운 펀드들이 등장하고 사이버 증시가 대중화되면서 증시 투자의 저변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주가 차별화 심화) 기업의 실적에 기초한 주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증시 여건²⁾이 호전되어 대세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나, 사업 전망과 경영에 관한 투명성과 실적에 따라 동일 산업내 주가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주가 변동 위험 증가) 장세 전망의 차이로 주가 변동이 증대되고 있음

- 단기급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담감과 차익 실현이 점차 증대하면서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해외시장에 대한 분산투자가 미흡하고, 일부 종목들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노출이 심한 편임
- 특히, 외국인 증시 투자자금의 국내 유출입 규모가 5월과 6월에 각각 58억 4,100만 달러, 73억 7,300만 달러에 이르러, 국내 증시의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시사점

- (기업 및 일반 투자자)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일반 투자자들은 간접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업은 주식자본주의(Stock Capitalism)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사업구조를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
- 일반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간접투자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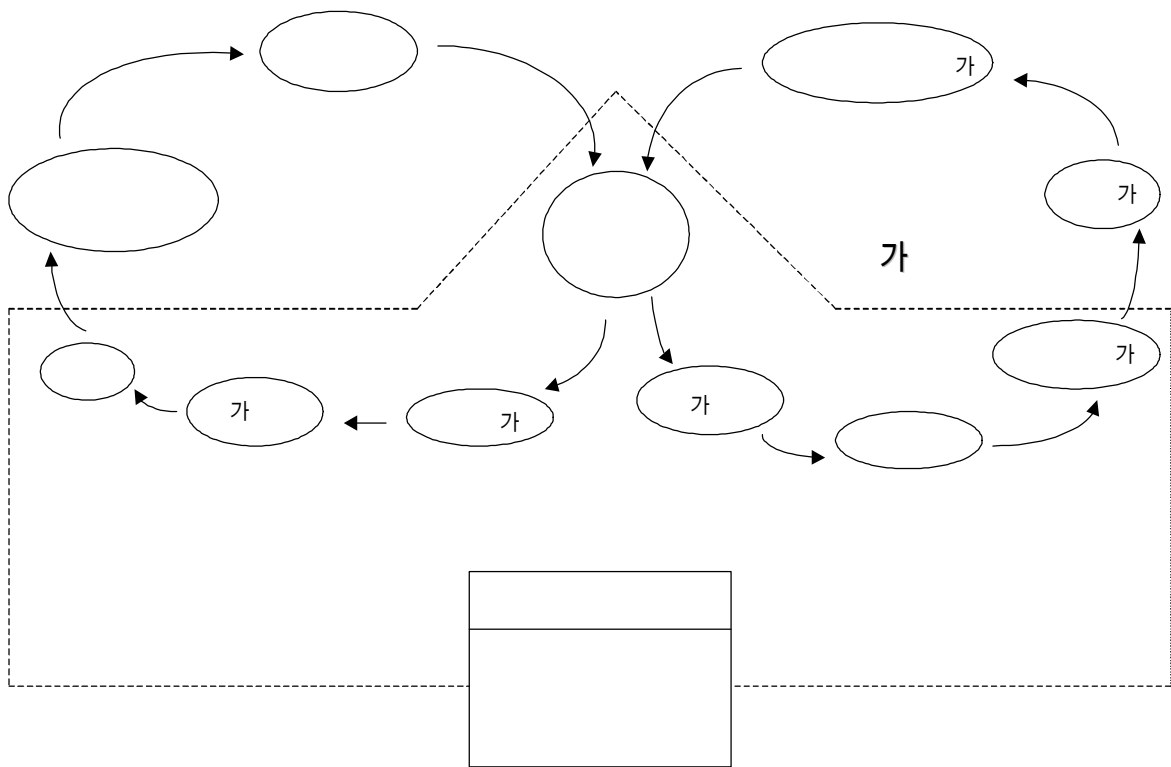
- (금융기관) 위험 관리 능력 및 자산 운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금융자산형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자문 및 자산 운용 업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금리, 환율, 및 해외 변수들에 따라 국내 증시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 하반기 주식 수급 상황도 수요 30~37조 원, 공급 28조~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로 이에 대한 면밀한 위험관리 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임
- (정부 관련 당국) 증시의 **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며, **외국 자금의 국내 유·출입**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증시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증시에서 기업과 가계의 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평가 및 公示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외국계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은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정부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증시 자금의 순환 구조 >



(hiskim@hri.co.kr ☎ 724-4013)